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하 20:1-3
2025 년 10 월 19 일 오전 11 시

눈물의 기도, 순종의 은혜

< 주여 도우소서 >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뒤에 순종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죽을 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단순한 치유를 넘어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순종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앗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심시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왕하 19:7).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이 철수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산헤립은 라기스를 떠나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람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앗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왕하 19:8). 랍사게는 사신의 역할을 마치고 산헤립에게 돌아갔고, 산헤립은 립나를 공격 중이었습니다. 립나가 함락되면, 다음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 위기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기도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직접 협박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 그 편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헤립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조차 앗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앗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왕하 19:11).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왕하 19:14).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소리와 위협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19).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왕하 19:20). 그리고 즉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시라”(왕하 19:32-33). 하나님께서는 립나까지 온 앗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고 철수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앗수르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사람은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밤새워 일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18 만 5 천 명의 군사들이 모두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헤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더해졌습니다. “앗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왕하 19:9). 구스는 나일강 상류의 누비아 왕국으로 디르하가는 나일강 하류까지 진출하여 이집트 제 25 왕조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디르하가가 앗수르를 치러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산헤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한 채 물러갔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왕하 19:36).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왕하 19:37). 산헤립을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산헤립의 친아들들입니다.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사 37:38). 하나님을 향해 교만을 떨던 산헤립은 아들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도, 가장 오만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대하 32:27). 산헤립에게 은 300 달란트(약 10 톤)와 금 30 달란트(약 1 톤)를 바치느라 모든 재산을 잃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군대를 멸하셨고, 185,000 명의 군사들이 남기고 간 금과 은,

보화와 병기가 모두 히스기야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창고를 세워야 할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2.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강대한 군대를 멸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고, 동시에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바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대하 32:23).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히스기야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에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왕하 20:1).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병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사 38:21). 종처라는 단어를 통해, 히스기야의 몸에 종기(腫氣)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기는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의 모낭, 즉 털이 나는 구멍에 세균이 침투하면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오릅니다. 오늘날에는 항생제가 있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종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중기였습니다. 고름을 한자로는 ‘농(膿)’이라 하고, 그 고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농(排膿)’이라고 합니다. 배농을 하려면 절개가 필요한데, 왕의 몸에는 칼을 댈 수 없었기에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름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패혈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하심으로 마지막 준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2 절). 히스기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쪽으로 돌려 모든 시선을 끊고, 사람도 세상도 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3 절).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4 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아직 왕궁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그토록 빠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5 절).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 년 더 연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6 절).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의 생명을 위한 간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응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3. 순종이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7 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무화과(Ficus carica)는 고대부터 음식과 약용으로 함께 쓰인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무화과에는 피신(ficin),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종기나 상처 부위의 고름 배출과 염증 완화를 위해 무화과 반죽을 외용제로 썼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어의들이 이미 사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병세만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도 아닌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는 말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순종하라는 명에 따라 신하들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 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

상식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홀이 된 시체의 무덤을 여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 11:40).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마르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리리 기도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몫이었다면, 돌을 옮기는 일은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눈물의 기도와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